

“불굴의 투혼 다시 한번...반드시 살아 돌아오라”

김홍빈 대장 귀환 한 목소리 염원
 동료 산악인 “건강한 모습 믿어”
 문 대통령 “희망 갖고 기다릴 것”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생환 기원

“김홍빈 대장, 꼭 살아서 돌아와 달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장에 산악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동에 성공하고도 하산 중 실종된 김홍빈(57) 대장의 무사 귀환을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지역민들은 “코로나19에 지친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도전에 나선 그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김홍빈 대장은 지난 18일 오후 4시58분(현지시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3고봉인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친 후 하산하다 사고를 당해 20일(한국시간)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다.
 김 대장의 도전을 응원해온 시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컸다. 시민 송준현씨(44·광주시 북구)는 “비장애인으로 도전하기 힘든 히말라야 14좌에 오른 쾌거를 기뻐할 새도 없이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그가 이번에도 오뎀처럼 난관을 이겨내고 건강

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창휘(54·지체장애) 광주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장은 “술한 역경을 극복하면서 히말라야 도전에 나선 그의 모습에 용기와 희망을 얻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그의 투혼이라면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장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산악인 등도 그의 생환을 간절하게 염원했다. 김 대장보다 앞서 2014년 브로드피크 완동에 성공한 김미곤(48·광주시산악연맹) 대장은 처음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는 김홍빈 대장의 히말라야 14좌 도전에서는 패배할 수 없는 동반자다. 김미곤 대장은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8000m 14좌 도전을 선언한 2006년 가셔브롬 II를 시작으로 에베레스트(2007년), 다울라기리(2009년), K2(2012년)를 함께 등정했다. 김미곤 대장은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언론의 오보라 생각해왔다. 끈질기고 강인한 김 대장의 성격이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며 그의 생환을 확신했다.
 2015년 김홍빈 대장의 브로드피크 등반 당시 함께 했던 이정현(51·순천대 산악부 OB·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주무관) 대장은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브로드피크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험준하기 이를 데 없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김

대장이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부터 김 대장과 인연을 맺은 후 국내 산행 등을 함께 해온 나정희(김홍빈과 희망만들기 회원)도 “대장님을 아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무사히 베이스캠프로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다. 희망을 갖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SNS 메시지를 통해 “어제 저녁 김홍빈 대장의 히말라야 14봉우리 완등 축하 메시지를 올렸었는데, 하산길에 실종되어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김 대장의 구조와 무사귀환 소식을 국민들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또한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정상에서 내려와 전화하겠다”는 전갈에 축하인사 전달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젯밤 갑작스러운 조난소식에 충격이 너무나 컸다.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는 김홍빈 대장의 구조와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다. 김 대장이 지난해 4월 17일 영암군 월출산 시루봉 암벽장에서 암벽등반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지난해 4월 17일 영암군 월출산 시루봉 암벽장에서 암벽등반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8047m, 히말라야서 12번째로 높은 봉우리 광주·전남 산악인들 1995년 한국 최초 등정

김홍빈 대장 실종 브로드피크는

산악인 김홍빈(57)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된 곳인 브로드피크(8047m, Broad Peak)는 광주·전남 산악계와 인연이 깊다.
 광주·전남 산악인들은 1995년 7월12일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12번째로 높은 이 봉우리를 한국 원정대로는 최초로 등정했다.
 당시 박찬기 대장이 이끄는 ‘95빛고을 브로드피크 원정대’는 새벽 4시 제4캠프(7570m)를 출발, 서쪽 능선을 통해 정상 공격에 나서 12시간의 사투 끝에 정상에 올라섰다. 이 원정대의 멤버는 광주·전남 산악인들이었다.
 하지만 하산길에 대원 1명이 실족해 추락하기도 했다.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브로드피크는 협준하기로 소문난 K2(8611m)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3 고봉이다.
 브로드피크라는 이름은 1892년 영국 탐험가 마틴 콘웨이에 의해 붙여졌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한 이들은 오스트리아 등반대(1957년 6월)다.
 브로드피크는 한국 산악계와도 인연이 깊다. 한국은 1977년 고(故)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해발 8848m)를 등정한 후 18년만인 1995년 히말라야 8000m 이상 14개 봉우리에 모두 올랐는데

마지막 봉이 브로드피크였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6좌 완동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도 같은 날 다른 팀과 함께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했다.
 1993년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에 성공한 고(故) 박영석 대장은 2000년에 브로드피크 정상에 섰다.
 이밖에 한왕용, 고 김창호 등 유명 산악인도 브로드피크 정상을 밟았다.
 2007년에는 정상 능선에서 사망한 독일 산악인 마르쿠스 크론타러의 시신이 1년 만에 수습되기도 했다.
 크론타러는 2006년 구조 헬기가 뜨지 못하는 고지대에서 사망한 후 시신이 방치됐는데 그의 형이 이듬해 원정대를 조직해 시신 수습에 성공한 것이다.
 한편, 김홍빈 대장은 현지시간 18일 오후 4시 58분(한국 시각 오후 8시 58분) 브로드피크를 등정,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동에 성공했지만 하산 도중 구조 과정에서 추락해 실종됐다.
 광주장애인체육회와 광주시산악연맹은 “러시아 등반대가 크레바스에서 빠진 김 대장을 발견했고, 손가락 흔드는 등 의식이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구조대원 1명이 내려가 물을 제공한 뒤 구조 활동을 펼쳐 15m 정도 끌어올렸지만, 줄이 헐거워지면서 아래쪽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권 재창출 할 후보, 광주·전남의 선택 받고 싶다”

정세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는 20일 “과거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광주·전남이 결정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는 “(호남은)PK 출신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주셨다. 호남 출신의 후보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광주의 정치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니고, 정권을 재창출할 후보를 선택해왔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이다. 능력은 기본이다. 민주당 경선이 네거티브 싸움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작은 도덕성 흠결이라도 혐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정치적 타격 입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경선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를 역담으로 가볍게 다루면 경선 후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검증, 담금질해야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을 광주에서도 잘 키워야 하고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하고 싶다. 광주·전남이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지금 시대정신은 불평등의 해소라고 생각한다.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후보가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여론 조사는 참고 사항이다. 제가 앞서 민주당의 본경선 후보로 등록된 것은 물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완주한다는 뜻이다”면서 “완주를 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광주시민들께서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그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냐 없느냐, 흠결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주시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광주·전남의 선택을 정말 받고 싶다”면서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게 목표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도 사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